구글링

최근 수정 시각: 2026-04-25 13:12:05

목차

1. 공부 방법
2. 간단 정리
3. 상급자 팁
4. 구글링(구글검색) 팁
5. 이미지로 보는 구글링
6. 유튜브
7. 해외 사이트
8. 고급 검색
9. 메갤 메벤
10. 디시 검색
11. 이슈 빠르게 퍼오기
12. 스크롤 캡처
13. 기타
14. 한계점과 극복
15. 정 모르겠다면
16. 부탁

1. 공부 방법

삼성브라우저에서 공부하기를 권장한다. 한글로 검색해도 주소창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웨일은 한글로 검색하면 %어쩌고로 바뀌어서 읽기 힘들다. 삼성브라우저에서는 주소창에서 그냥 띄어쓰기해도 %20로 안 바뀌어서 보기 깔끔하다. 그러니 검색할 때 억지로 +를 쓸 필요는 없다. 단, 링크를 올릴 때는 그 사이를 +나 %20으로 채워줘야한다.
삼브의 adguard와 다크모드에 맛 들이면 못 빠져나온다. ~~인터넷 폐인 등극이다~~!!!!

🔗 # 이미지 검색 시에는 q=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

너무 지나치게 부담 갖지는 않아도 된다. 구글링은 수학처럼 선수지식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심각한 컴맹 수준만 아니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리캡챠가 좀 짜증나기는 한데 하다보면 적응한다. ~~나 사람 맞는데 자꾸 아니라고 한다~~ ~~왜지.....~~ ~~어느 순간 체념한다.....~~

기타에도 꽤 쓸만한 거 많으니 참고하자.

참고로 커뮤니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사람이 많다.

2. 간단 정리

1. gl=US&num=100&newwindow=1
각각 성인인증 우회, 100개의 결과, 새 탭에서 열기.

2. A OR B 또는 A | B
A 또는 B를 검색

3. site:A
특정 사이트에서 검색

4. A
정확하게 검색

5. -A
A를 빼고 검색
-A, -site:A, intitle:A, inurl:A, -A AROUND(10) B 등등
A AROUND(10) B를 통해 와 AROUND(X)를 합칠 수 있음.

6. intitle:A, inurl:A
제목, 주소에서 검색

제목, 주소에서 검색
inurl은 보통 주소의 특정부분을 씀. (ex. site:dcinside.com inurl:baseball_new8)

7. A * B
와일드 카드

8. &tbs=qdr:n/h/d/w/m/y숫자
기간 검색(ex. h6 = 6시간 이내)

9. &lr=lang_??(&hl=??&cr=country??)&gl=??
lr, cr은 고급검색의 언어와 지역. hl, gl은 검색설정의 언어와 지역.

10. N..N 단위
숫자 범위 안의 결과 검색. (ex. 1..2 개 = 1개 OR 2개)

11. A AROUND(10) B
A와 B사이가 10미만인 결과를 검색

12. inurl:com OR inurl:net OR inurl:kr N..N 단위 AROUND(10) A
10번+11번. inurl 필수.

13. filetype:양식
특정 파일 검색.

14. vimium, dark reader
필수 확장 프로그램.

3. 상급자 팁

구글 검색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을 위한 글이다. 만약 초보라면 다른 글을 먼저 읽기를 권장한다.

< 1. site: + inurl: , site: + URL Escape Code >
주소를 좀 더 상세하게 정하여 검색할 수 있다. PC버전글과 모바일버전글이 동시에 검색되도록 한다. 이미지 검색에서는 inurl: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미지 검색할 때는 URL Escape Code를 이용해야한다.

? = %3F, % = %25

dcinside: 한국의 유명한 커뮤니티
gall.dcinside.com = PC version
m.dcinside.com = Mobile version
dcinside.com = PC&Mobile version

site:gall.dcinside.com inurl:leagueoflegends4 - No
site:m.dcinside.com inurl:leagueoflegends4 - No
site:dcinside.com inurl:leagueoflegends4 - Yes

🔗 비, 🔗 교

🔗 비, 🔗 교

< 2. "숫자..숫자 단위" >

숫자와 단위 사이를 반드시 띄어야한다.
🔗 비, 🔗 교

3. 쌍따옴표("")

쌍따옴표는 2가지 기능이 있다.
1. 문장을 정확하게 검색하고자 할 때 쓴다.
2. 여러 검색 연산자를 조합할 때 쓴다. 게임의 콤비네이션을 생각하면 된다.

4. 별표(*)

별표에는 4가지 기능이 있다.
1. 단어가 생각이 안나거나 아무 단어나 들어가도 상관없을 때 쓴다.

1. 단어가 정확히 한 단어거나 여두 단어의 일부가포 함된값을 때 쓴다.
2. 특수문자를 대체할 때 쓴다. 🔗 예시
3. 두 단어 사이가 특정 거리인 게시물만 검색할 때 쓴다. 모양은 "A * * B", "A * * * B", "A * * * * B" 등이 있다.
4. 두 단어 사이가 특정 거리인 게시물만 제외할 때 쓴다. 모양은 -"A * * B", -"A * * * B", -"A * * * * B" 등이 있다.

5. AROUND(X)

두 단어 사이의 거리를 제한한다.

대다수의 게시물이 위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위 설명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AROUND(X)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0. 기본형은 A AROUND(X) B 이다. 여기서 A와 B는 서로다른 키워드이고 X는 숫자이다.
1. 한 문장이나 한 문단 안에 키워드가 모두 들어있는 게시물만 검색할 때 쓴다.
2. 한 문장이나 한 문단 안에 키워드가 모두 들어있는 게시물만 제외할 때 쓴다. 이 때 모양은 -"A AROUND(X) B" 이다.
3. 반드시 한 문장이나 한 문단일 필요는 없다. 두문장, 세 문장, 두 문단, 세 문단 등이어도 된다.
4. A AROUND(X) B 또는 "A" AROUND(X) "B" 는 거리만 고려한다. "A AROUND(X) B" 는 거리와 순서 둘다 고려한다.
5. 한 문장이나 한 문단 안에 똑같은 키워드가 여러개 들어있는 게시물만 검색하거나 제외할 때 쓴다. 이 때 모양은 "A AROUND(X) A" 또는 -"A AROUND(X) A" 이다.
6. A AROUND(X) B AROUND(X) C 또는 "A" AROUND(X) "B" AROUND(X) "C" 또는 -"A AROUND(X) B AROUND(X) C" 같이 쓸 수도 있다. 여러 키워드를 할 때 거리는 X로 통일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AROUND(X)를 어렵고 쓸모없는 연산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쓸만한 연산자이다. 그러나 천천히 읽어보자.

6. 별표(*)와 AROUND(X)의 차이

별표(*)의 3,4번째 기능과 관련있다. 별표(*)는 특정 거리인 게시물을 검색하고 AROUND(X)는 특정 거리 이내인 게시물을 검색한다.

별표: 오직 10M
AROUND(X): 10M, 9M, 8M, ... , 2M, 1M

대체로 X-1이 두 단어 사이에 들어가는 별표의 개수이다. 그러나 아닐수도 있다. X를 조금씩 바꿔보며 생기는 검색 결과의 변화를 주목하자.

7. lr, cr, hl, gl

lr: 게시물 제목이나 내용을 이루는 언어
cr: 게시물 URL이나 사이트 IP 주소 국가
hl: 인터페이스 언어
gl: 너의 IP 위치

lr을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lr=(lang_zh-CN|lang_zh-TW).(-lang_en)
중국어 또는 대만어 게시글 검색하고 영어 게시글 제외한다는 뜻이다.

크롬브라우저 구글 고급 검색 사이트에서 ctrl+shift+c 단축키로 "name=gl" 을 발견하여 gl을 증명할 수 있다. 나머지 셋도 마찬가지이다.

글은 여기가지이다.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4. 구글링(구글검색) 팁

구글은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능들은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검색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다. 🔗 32개 단어까지 가능하다. 🔗 여기같이 URL을 디코딩해주는 곳을 참고하면 좋다. URL escape code를 참고하자.

🔗 기본틀1 🔗 기본틀2 🔗 기본틀3

> 0. 커뮤니티&SNS&이슈&논문

2023년 아르고스 빅카인즈[1]
이슈링크[2][3] AAGAG[4]
커뮤기본1 커뮤기본2[5][6]

커뮤2 커뮤3 커뮤4[7]
디댓 디추 디1 디2 [8][9]
어라2 어라1 [10] 디1.1 [11] [12] [13] [14] [15]
디1.5 디1.4 디1.3 디1.2
숫자별1[16] 숫자별2[17] 숫자별3[18] 숫자별4[19]
디1.1.1 디1.2.1 디1.3.1
디1.1.2 디1.2.2 디1.3.2 [20]
SNS[21] 나무위키[22] 구글링[23]
무료논문 RISS KOCW
커뮤링크를 뒤쪽에 +A&tbs=qdr: 방식으로 만든 이유는 qdr을 쓰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vimium에서 gi를 누르면 커서가 맨 뒤로 가기 때문이기도 하다.
링크를 보면 &q=이 2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지 검색 시에는 q=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의한다. #
구글에서 디시글을 들어가면 가끔씩 엉뚱한 글이 나올 때가 있다. 이 현상은 납치, 워프, 포탈 등으로 불린다. PC버전으로 바꿔서 들어가면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커뮤니티에서 쓰는 드립을 함부로 현실에서 쓰면 곤란해질 수 있다.
'확증편향', '커뮤중독'이라는 키워드 2개를 추천한다.

> 1. &num=100&newwindow=1

주소에 &num=100을 달아주면 한 페이지에 100개의 검색결과가 나온다. &newwindow=1은 검색결과를 항상 새 창에서 열리게 한다.
구글링용 구글

> 2. (검색어) OR (검색어)

둘중 하나라도 포함된 글이 나온다. **검색어와 OR사이를 반드시 띄워야한다.** 또한 **반드시 OR을 대문자로 입력해야 한다.** 1 2 3 4 또한 |(수직선)으로도 가능하다.

비 교, 비 교
수직선의 경우에도 검색어와 수직선 사이를 띄우는 것이 정석이다.

> 3. site:(URL)

?O ?X [24] [25]
디시검색 [26] [27]
특정 사이트 내에서 검색한다. 주소에 ?가 들어가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 4. (검색어)

유튜브[28] 동영상주소+다언어 위키 위키2 (#)

정확하게 검색한다.

반드시 포함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한 단어에 쌍따옴표를 쓸 필요는 전혀 없다. 사과나 "사과"나 결과는 똑같다는 말이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곳에 쌍따옴표 예시랍시고 한 단어에 씌우는 것이 보이는데, **전부 엉터리 예시이다.** "합의안"과 "합의 안"을 예시로 드는 것이 맞다.

애초에 제목/본문에 들어가라고 키워드를 넣는 거 아니었나. (오늘 디시인사이드) 라고 검색한다는 것은 제목/본문에 (오늘)과 (디시인사이드) 두 키워드가 **포함된** 결과물을 찾는다는 말과 같다.

""안에 띄어쓰기가 없다면 띄어쓰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합의안"은 합의안, 합의+안, 합+의안,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합의안해"를 검색하고 ctrl+f를 써보면 중간에 띄어져 있는 경우

를 볼 수 있다. (단 띄어쓰기가 없어도 합 다음 분자는 의, 의 다음 분자는 안으로 분자의 나열순서는 고정된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자주 틀리는 문장이라면 아예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검색하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 "공부 안 하는"보다 "공부안하는"이 좀 더 좋은 키워드이다. 문법적으로는 '공부+안+하는'이 맞지만 '공부+안하는'으로 작성된 글도 은근히 많기 때문이다.

강제성 정도는 AB<"AB"<"A B"이다. (A,B는 문자) AB는 A 와 B 사이에 다른 문자나 문장이 들어갈 수 있다.(intitle:밥먹다에서 '밥을'로 찾으면 제목에 밥을 먹다로 되있는 글이 몇 개 있다. '을'이라는 문자가 들어간 것이다.) "AB"는 AB와 A B 둘다 검색할 수 있으나(띄어쓰기 고려X) A다음은 반드시 B가온다. 즉 문자의 나열 순서를 고정시켜 다른 문자나 문장이 끼어들 여지를 막는다. "A B"는 강제성이 최고 수준으로, 띄어쓰기까지 완벽히 강제한다. [29]

*를 고려하면 모른다. 🔗 1 🔗 2 비교 해보자. 그리고 "동해물과*하느님이"와 "동해물과 * 하느님이"를 비교해보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강제성 AB<"AB"<"A B"
2. 사과같은 경우 굳이 "사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3. "AB"가 "A B"보다 대부분 좀 더 좋은 키워드이다.
4. *를 쓴다면 모른다.

참고로 -inurl 또는 -site와 결합해, 특정 글을 공유한 글을 검색할 수도 있다. 🔗 나무위키에서도 된다.

> 5. -(검색어)

해당 검색어를 제외한 결과를 보여준다. 32단어 제한 때문에 더 빼기 힘들 경우 custom blocker라는 확장프로그램을 이용해 뺄 수 있다. 참고로 custom blocker를 이용해 특정 닉네임을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site:주소 처럼 사용할 수 있다.
🔗 1 🔗 2 [30]

> 6. intitle:(검색어) inurl:(검색어)

제목(title) 또는 주소(url)에서 검색한다. 맨앞문자를 반드시 소문자로 입력해야한다. 🔗 대문자로 했을 시 (intitle:사과 intitle:배)같이 여러개 쓸 수 있다.

> 7. * (별표)

와일드 카드다.

> 8. define:(검색어)

해당 단어의 정의를 상단에 보여준다.

> 9. (&tbs=cdr:1,cd_min:월.일.년,cd_max:월.일.년) 또는 (&tbs=qdr:n/h/d/w/m/y숫자)[31]

검색기간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이미지 검색에서는 1주이내(tbs=qdr:w)외에 적용되지 않는다. pc버전으로 바꾸면 해결된다.
🔗 1.1~1.2 🔗 10분이내
🔗 커뮤니티2 🔗 유튜브2

> 10. 이미지 검색 (우클릭해서 안 뜰 경우)

https://www.google.com/searchbyimage?image_url=이미지주소
ex. 🔗 https://www.google.com/searchbyimage?image_url=http://optimal.inven.co.kr/upload/2019/03/17/bbs/i14373696541.jpg

> 11. vimium

vimium이라는 확장프로그램은 마우스 사용을 최소화해준다. 여러 단축키[32][33]가 있지만 f와 백스페이스(취소할 때) 그리고 gi [34]가 핵심이다. 여기에 키보드 단축키[35] [36]를 병행하면 더욱 좋다. 참고로 크롬에서 Go back with backspace라는 확장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백스페이스로 뒤로가기를 할 수 있다.

> 12. 캡처 도구

1. windows 보조프로그램에 있는 캡처도구를 바탕화면에 추가한다.
2. '우클릭>속성>바로가기키'에서 설정하고 캡처도구를 실행한다. 숫자키패드의 숫자를 권장한다.
또는, 작업표시줄(바탕화면 밑에 있는 줄)에 추가한 뒤, window+숫자키(작업표시줄에 있는 특정 프로그램 실행. 왼쪽부터 1, 2, 3...순서이다)를 눌러 캡처도구를 실행한다.

> 13. 시크릿모드, 다크모드, 멀티윈도우, 이미지 차단, 연속 클릭

시크릿 모드 모른다면 반드시 들어가보자! 바탕화면 아이콘 우클릭>속성>바로가기>대상>어쩌고.exe" 뒤에 한칸 띄우고 https://www.naver.com -private 를 넣는다. (익스플로러는 -private 크롬은 -incognito 엣지는 -inprivate 이다.) 그러면 이제 매번 ctrl+shift+(p 또는 n)을 누를 필요가 없다.

당연한 얘기지만 시크릿모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시크릿 모드'만'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것저것 알아보려 노력하자. (ex. 최근항목 삭제, 구글 활동제어 등)

참고로 기록보기는 ctrl+h, 기록삭제는 ctrl+shift+delete 이다.

가끔 웹브라우저를 실행했을 때 상태표시줄 아이콘이 깜빡깜빡 거리고 주소창에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때 ALT+TAB(작업 전환)을 이용하면 주소창에 입력이 된다. 그냥 마우스로 웹브라우저를 한번 클릭해줘도 된다. 'Win+T (작업표시줄) -> 방향키로 크롬 선택 -> 메뉴 키 -> 새 시크릿 창 선택 -> ALT+TAB(작업 전환)' 같은 방식으로 마우스 없이 시크릿 모드로 할 수 있다. 메뉴키를 잘못 눌러 취소하고 싶다면(ex. 크롬에서 메뉴키 누르려 했는데 엣지에서 누름) ESC키로 취소하고 크롬을 선택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하고 가볍게 알아두면 된다.
Win+숫자로 크롬 들어간 뒤 ctrl+shift+n하거나 바탕화면 아이콘 우클릭>속성>바로가기>대상>어쩌고.exe" 뒤에 한칸 띄우고 https://www.naver.com -incognito 를 넣는게 훨씬 더 편하다. incognito를 넣은 뒤 기존에 작업표시줄에 있던 크롬을 작업표시줄에서 제거하고 바탕화면 아이콘을 마우스로 끌어다가 작업표시줄에 놓으면 이제 작업표시줄 아이콘을 한번만 눌러도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진다. 이렇게하면 매번 우클릭해서 새 시크릿 창을 클릭할 필요없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시크릿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

시크릿 모드로 시작하거나 시크릿 모드에서 새 탭을 추가할 때 '시크릿 모드로 전환됨'이라는 검은 화면이 뜨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컴맹은 첫화면에 웬 검은 화면이 뜨면 많이 당황해할 수 있다. 이 때 🔗 New Tab Redirect라는 확장프로그램을 쓰면 된다. 확장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옵션에 들어가서 Redirect URL을 설정한 뒤 Save를 누른다. 그리고 확장프로그램 설정에서 세부정보에 들어간 뒤 '시크릿 모드에서 허용'을 켜주면 끝이다.

다크 모드 참고. dark reader를 쓰자. 눈이 덜 아프다. 모바일에서는 야간모드(삼브, 웨일 등)와 블루라이트 차단 어플을 쓰면 된다.

스마트폰으로도 여러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 multi star를 깔지 않으면 게임 돌리고(또는 동영상 보면서) 다른 탭 터치 시 멈춰버리기 때문에 필수 앱이다.
1. 갤럭시 스토어에서 good lock을 설치.
2. good lock에 들어가서 multi star 설치.
3. multistar에 들어가서 '멈춤없이 멀티 윈도우 사용' 활성화.
4. 게임을 실행하고 최근앱(홈버튼, 뒤로가기말고 나머지 하나) 버튼을 누른다.
5. 아이콘을 터치하고 '팝업 화면으로 보기'를 누른다.
6. 크기를 조절하고 오른쪽 아래 구석에 박아놓는다.
7. 딴 거를 실행한다.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는 광고차단 앱을 같이 쓸 수 있다. 데이터를 아끼고 싶다면 사용자 필터에서,
||*.jpg
||*.jpeg
||*.png
||*.gif
||dcimg*

를 추가하면 된다. [37]
adguard를 추천한다.

🔗 # 🔗 @ 키보드 2개와 마우스키로 연속클릭을 할 수 있다. 각각 0번키와 .키를 누르면 된다. 클릭을 1. 눌렀다 2. 뗐다 두 과정으로 보면 0번키는 누른 것이고 .키는 뗀 것이다. 5번키(한번클릭)와 +키(더블클릭) 조합으로도 된다. 단 5번키와 +키 조합은 한번에 3번 클릭하기 때문에 제어판 키보드 속도를 낮춰도 렉이 걸릴 수 있다. 제어판 키보드 속도를 낮추면 연속클릭 속도를 낮출 수 있다.

삼성브라우저나 웨일 브라우저는 아이콘을 꾹누름>새 시크릿 탭 꾹 누름>원하는 위치에 두기하면 바로 시크릿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

pc크롬은 ublock origin, 익스플로러는 adblock plus을 설치하면 된다. inprivate/시크릿 모드에서 이용하려면 각각 인터넷옵션>개인정보>inprivate브라우징시작시... 체크해제, 도구 더보기>확장프로그램>세부정보>시크릿모드에서 허용. 이제 시크릿 모드에서도 확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14. 내 컴퓨터 상태 확인

window + pause/break
window + e [38] (용량확인)
눌러보면 바로 이해 할 수 있다.

> 15. 특수 문자 입력

알트 입력법 참고. 특수 문자 참고.
자음(ㅁ 등)+한자+Tab
133 말줄임표 183 중점 ·
176 도 기호 ° 177 플마 ± 178 제곱 ²

> 16.~ (?)

~(검색어)가 비슷한 의미의 단어도 검색한다는데, 이미 폐기된 연산자이다. 🔗 # 🔗 부활했다는 말도 있으나, ~검색어 -"검색어" [39]로 검색했을 때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을 보면 ~연산자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2019년에도 네이버에 ~나 (숫자단위..숫자단위)따위가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다. 🔗 비 🔗 교 잘못된 정보가 수정되기를 바란다.

> 17. &lr=lang_??(&hl=??&cr=country??&)gl=?? [40]

lr과 cr은 각각 🔗 여기의 '언어'와 '지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hl은 🔗 여기의 언어, gl은 🔗 여기의 지역설정에 해당한다. [41] [42] [43] lr은 문서[44]의 언어, hl은 사용자[45]의 언어, cr은 문서[46][47][48]의 국가, gl은 사용자[49]의 국가를 결정한다. 다른나라도 알고 싶다면 🔗 여기를참고하자. 🔗 출처 lr=-lang_ko 같이 할 수도 있다.
🔗 다언어 🔗 한국 🔗 미국 🔗 일본 🔗 대만 🔗 중국 [50]

> 18. "숫자..숫자 단위"

🔗 예시1
🔗 네이버
🔗 티스토리 [51]
[예시4]
숫자 범위내의 검색 결과가 나온다. 숫자와 단위 사이를 반드시 띄어야 한다. 검색결과가 너무 적게 나온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숫자..)를 하면 숫자 이상을 의미한다. (0..10)같이 앞에 0을 넣을 수도 있다.

> 19.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괄호의 역할과 같다. 그런데 실제로 작동하는 연산지인지는 모르겠다.

> 20. "검색어" AROUND(숫자) "검색어"

2기본 3기본 4기본 5기본 6기본 7기본 [53]
커뮤니티3 예시
숫자범위 커뮤니티4 [54] [55]
장거리용 별표(*) [56]
두 단어 사이의 최대 거리를 제한 한다. [57] 숫자는 보통 10단위(10, 20,...)을 사용한다. [58] [59] 가사를 검색할 때는 50, 100같이 큰 수를 쓸 수도 있다.
"A" AROUND "B"는 순서에 상관없이 검색할 수 있고 "A AROUND B"은 순서를 강제할 수 있다. 전자는 A-B와 B-A 둘다 검색하고 후자는 A-B만 검색한다. 비 교
처음에는 딱히 쓸데없다고 생각했지만 익숙해지면 매우 빈번히 쓰게된다. AROUND(10)으로 하면 감잡기 쉽다.

AROUND(X)를 처음 본 사람이라면 얘를 왜 쓰는 건지 모를 수 있다. 두 단어사이의 최대 거리를 제한해서 뭐 어쩌자는 건지 궁금할 수 있다.

먼저 AROUND(X)의 핵심으로, 한 문장이나 한 문단에 키워드가 모두 들어간 경우만 찾고 싶을 때 쓸 수 있다. 다음 경우를 살펴보자.

<경우A>
1. 동해물과 가나다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2절, 3절)
4.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라마바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경우B>
1. 동해물과 가나다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라마바 길이 보전하세

<경우C>
1. 동해물과 라마바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가나다 길이 보전하세

<경우D>
1. 동해물과 가나다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가나다 길이 보전하세

예를 들어 [가나다 라마바]라고 검색하면 [가나다]와 [라마바]가 모두 들어간 결과가 나오지만 [가나다]와 [라마바]의 거리가 멀 수 있다. 다시말해 A,B,C 모두 검색된다. 이 때 ["가나다" AROUND(30) "라마바"]같이 검색하면 한 문장이나 한 문단 안에 [가나다]와 [라마바]가 모두 들어있는 글만 검색할 수 있다. 다시말해 경우 B,C만 검색된다.

["가나다 AROUND(30) 라마바"]같이 검색한다면 순서도 고려하게 된다. 다시말해 B를 검색한다. 그리고 만약 [-"가나다 AROUND(30) 라마바"]같이 검색한다면 [가나다]와 [라마바]가 일정 거리안에 있는 글을 제외한다. 다시말해 B를 제외한다. ["가나다 AROUND(250) 라마바"]같이 숫자를 크게 할 경우 A,B가 검색된다. [-"가나다 AROUND(250) 라마바"]같이 숫자를 크게 할 경우 A,B가 제외된다.

["라마바 AROUND(30) 가나다"]같이 한다면 C를 검색한다. 그리고 만약 [-"라마바 AROUND(30) 가나다"]로 검색한다면 [가나다]와 [라마바]가 일정 거리안에 있는 글을 제외한다. 다시말해 C를 제외한다. ["라마바 AROUND(250) 가나다"]같이 검색하도 C만 검색하고 A는 검색되지 않는다. [-"라마바 AROUND(250) 가나다"]같이 검색해도 C만 제외되고 A는 제외되지 않는다.

["가나다 AROUND(250) 가나다"]같이 검색하면 D같은 경우만 검색할 수 있다. ["가나다" AROUND(250) "가나다"]의 경우 그냥 [가나다]가 들어간 A,B,C,D 모두 검색되는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를 이해했다면 2,3,4,5,6번째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두번째로 예시를 살펴보자. 나는 특정유저(abc라 하자)의 블라인드된 댓글을 찾고 싶다. 그렇다면 검색어를 [abc 블라인드 site:inven.co.kr]
라고 하면 충분할까?

물론 이렇게 해도 결과는 나오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를들어 다른 유저의 댓글이 블라인드 되었고 abc는 그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을뿐 abc의 댓글이 블라인드 되지는 않았을 수 있다.

["abc" AROUND(20) "블라인드" site:inven.co.kr]
반면 이렇게 하면 [abc]와 [블라인드]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글만 나온다. 물론 이 경우에도 abc의 댓글과 가까이에 있던 유저(abc 바로 위나 아래)가 블라인드된 경우에는 나올 수 있지만, 전자에 비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글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60]

세번째로 히토미를 살펴보자. 그냥 [태그]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read online" AROUND(200) "태그"] 같이 했을까? 그 이유는 related galleries(연관 작품)에서도 태그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bc라는 태그가 들어간 작품을 검색하고 싶다고 하자. 물론 [abc site:주소]를 해도 결과는 나온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를들어 작품에는 abc태그가 없고 연관작품에는 abc태그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AROUND(X)를 활용한다면 이런 경우를 어느정도[61] 막을 수 있다. 다시말해 내가 원하지 않는 글을 어느정도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62][63][64] 네 번째로 마나모아를 살펴보자. 찾기(ctrl+f)로 '인기'를 찾아보자. 왜 [인기 100000..]으로 안하고 굳이 [inurl:주소 "전체목록" AROUND(30) "인기 100000.."] [65] 같이 하는 것일까?

마나모아의 경우 작품에도 인기:숫자가 뜨지만 밑에 쭉 내리면 다른 작품에도 인기:숫자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인기 100000..]으로 검색한다면 작품은 인기:숫자가 낮지만 밑의 다른 작품이 인기:숫자가 높은 경우도 결과에 잡힐 수 있다. 즉 원하지 않는 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때 AROUND(X)를 사용한다면 이 같은 경우를 줄일 수 있다. 다시말해 원하지 않는 글을 어느정도 제외시킬 수 있다.

추가로 디1.1을 보자. 왜 굳이 -"이미지 AROUND(20) A"를 넣은 것일까?

구글에서 디시글을 검색해본 사람이라면 엉뚱한 내용이 나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댓글 밑에 나오는 다른글을 보면 거기에 키워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히토미나 마나모아처럼 글의 제목, 내용, 댓글에는 키워드가 없지만 댓글 밑 다른 글에 키워드가 있는 경우이다. 이때 AROUND(X)를 쓴다면 이 같은 경우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물론 디1.1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66] 상당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AROUND(X)를 이용하여 링크 모음집을 검색할 수 있다.

예시1[67]같이 검색하여 정보글/공략 링크 모음집 같은걸 검색해볼까 하는 생각과 예시2같이 검색하여 정부사이트 링크 모음집을 검색해볼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려보았다. 예시3같이 A에 사이트 주소를 대입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가나다 AROUND(250) 가나다"]를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커뮤기본링크모음[68][69]
커뮤기본정부링크모음1[70]
커뮤기본정부링크모음2[71]

디시링크모음1[72]
디시링크모음2
디시정부링크모음

네이버 블로그 - # #
티스토리 - # #
정부/연구기관 - # #
인벤 - # #
펨코 - # #
아카 - # #

마지막으로 AROUND(X)를 이용하여 장문(長文)의 게시글을 검색해볼 수 있다.

네이버블로그_장문검색
티스토리_장문검색
정부기관_장문검색

연구기관_장문검색

디시_장문검색
커뮤기본_장문검색

리캡챠가 자주 뜨지만 계속 하다보면 그러려니해진다.

여기까지 AROUND(X)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보충 설명하였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 21. 숫자별

왜 이것이 필요한지 궁금할 수 있다. ["추천 * 댓글 100.."]을 쓰면 충분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다. 전자를 쓰는 이유는 후자에서 안 잡힌 글을 전자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를 써본 사람이라면 조건에 맞는데도 글이 안 뜨는 경우를 본 적 있을 것이다. ..(숫자범위)가 좋은 연산자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서 가끔 누락되는 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를 전자가 잡아줄 수 있다.[73]

디시 루리웹 펨코[74] 아카 인벤[75]
개드립넷 오르비 블라인드 블로그[76]
네판1 네판2 더쿠 인티[77] 해연갤
티스토리 티스토리2[78] 티스토리3[79]
디피1 디피2 kci1 kci2

참고로, inurl: 연산자로 특정 갤러리만 검색할 수 있다. (ex. inurl:baseball_new9) 반대로 특정 갤을 뺄 수도 있다. (ex. -inurl:baseball_new9)

> 22. 그 외 자잘한 응용 예시

경제1 경제2 경제3
경제 관련 디시. 인터넷 정보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니 맹신하지 말자.

링크1 링크2
filetype 연산자를 보완해줄 수 있다. 바이러스 조심!!

# #
정부 사이트 검색.

디시 숫자별2[80] 디시숫자별3[81] 디시숫자별4[82]

비추숫자별
디시비추1 디시비추2

고닉추1 고닉추2

디시짧은글제외[83]

브런치[84][85]

오유 숫자별

일숫1 일숫2 일숫3 일숫4 일정 일댓[86]
정보글이라지만 인터넷 글이 그렇듯 신뢰도는 낮다. 국내 사이트 중에서 인식이 매우 나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한다. 그냥 '이런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충분하다.

더쿠댓글 더쿠정보[87] 펨코정보
정보글의 댓글에 ㅇㄷ(와드)나 ㅅ(스크랩) 등이 달린 것을 이용한 것이다.

보고서 [88] 보고서2

유튜브 댓글 특정 닉네임이 쓴 댓글을 모아서 볼 수 있다. 원리는 pc버전에서 볼 수 있다.

도서 교보문고 yes24 인터파크 [89]
400p가 넘는 책을 검색한다.

5. 이미지로 보는 구글링

이미지로 보는 구글링
이미지는 여기서 보면 된다.

잘 모르겠다면 커뮤기본1을 이용해보자. A를 지우고 키워드를 넣으면 된다. #, #, # 여기도 보면 좋다. '사람들이 여기를 어려워하거나 헷갈려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이미지를 통해 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보았다.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1. -(마이너스)
키워드를 제외한다. 'A -B'같이 'A'와 '-B' 사이를 띄어야한다.

2. OR
둘 중 하나가 들어간 글을 검색한다. 대문자여야하며 양 옆을 띄어야한다. |(수직선)을 써도 된다.

3. site:
특정 주소 내에서 검색한다. ?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3F(url escape code)로 바꾸거나 inurl:을 써야한다. 보통은 모바일글과 PC글을 동시에 검색하기 위해 앞에 gall. 이나 m. 을 지우고 inurl:을 쓴다(이미지에서는 gall. 이 있지만 지워야한다). 단 이미지 검색에서는 inurl:이 제대로 안 먹히기 때문에 %3F를 쓰고 'site:PC글주소 OR site:모바일글주소'를 쓴다.

그냥 '검색어 디시인사이드'같이 하면 되는데 왜 '검색어 site:dcinside.com'같이 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이는 정확하게 검색하게 위해서이다. 예를들어 '디시인사이드 나무위키'라고 검색하면,
디시에서 나무위키를 언급하는 글 -> '나무위키 site:dcinside.com'
나무위키에서 디시를 언급하는 글 -> '디시인사이드 site:namu.wiki'
둘 다 아닌 사이트에서 디시와 나무위키를 언급하는 글 -> '디시인사이드 나무위키 -site:dcinside.com -site:namu.wiki'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다.

4. "숫자..숫자 단위"
숫자 범위내의 검색 결과가 나온다. 숫자와 단위 사이를 반드시 띄어야 한다.

5. ""(쌍따옴표)
정확하게 검색한다. 또한 여러 연산자를 복합적으로 쓸 때 이를 정교하게 만들어준다.

6. intitle:
제목에서 검색한다. 맨 앞의 i는 소문자여야한다.

7. lr, cr, hl, gl
네 가지를 구분하기 좋게 만들었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

8. AROUND(X)

이미 위에 있는 문장이지만 AROUND(X)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더 적는다.
먼저 AROUND(X)의 핵심으로, 한 문장이나 한 문단에 키워드가 모두 들어간 경우만 찾고 싶을 때 쓸 수 있다. 경우A와 경우B를 살펴보자.

<경우A>
1. 동해물과 가나다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2절, 3절)
4.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라마바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경우B>
1. 동해물과 가나다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라마바 길이 보전하세

<경우C>
1. 동해물과 라마바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가나다 길이 보전하세

<경우D>
1. 동해물과 가나다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가나다 길이 보전하세

예를 들어 [가나다 라마바]라고 검색하면 [가나다]와 [라마바]가 모두 들어간 결과가 나오지만 [가나다]와 [라마바]의 거리가 멀 수 있다. 다시말해 A,B,C 모두 검색된다. 이 때 ["가나다" AROUND(30) "라마바"]같이 검색하면 한 문장이나 한 문단 안에 [가나다]와 [라마바]가 모두 들어있는 글만 검색할 수 있다. 다시말해 경우 B,C만 검색된다.

["가나다 AROUND(30) 라마바"]같이 검색한다면 순서도 고려하게 된다. 다시말해 B를 검색한다. 그리고 만약 [-"가나다 AROUND(30) 라마바"]같이 검색한다면 [가나다]와 [라마바]가 일정 거리안에 있는 글을 제외한다. 다시말해 B를 제외한다. ["가나다 AROUND(250) 라마바"]같이 숫자를 크게 할 경우 A,B가 검색된다. [-"가나다 AROUND(250) 라마바"]같이 숫자를 크게 할 경우 A,B가 제외된다.

["라마바 AROUND(30) 가나다"]같이 한다면 C를 검색한다. 그리고 만약 [-"라마바 AROUND(30) 가나다"]로 검색한다면 [가나다]와 [라마바]가 일정 거리안에 있는 글을 제외한다. 다시말해 C를 제외한다. ["라마바 AROUND(250) 가나다"]같이 검색하도 C만 검색하고 A는 검색되지 않는다. [-"라마바 AROUND(250) 가나다"]같이 검색해도 C만 제외되고 A는 제외되지 않는다.

["가나다 AROUND(250) 가나다"]같이 검색하면 D같은 경우만 검색할 수 있다. ["가나다" AROUND(250) "가나다"]의 경우 그냥 [가나다]가 들어간 A,B,C,D 모두 검색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 예시를 살펴보자. 나는 특정유저(abc라 하자)의 블라인드된 댓글을 찾고 싶다. 그렇다면 검색어를 [abc 블라인드 site:inven.co.kr]라고 하면 충분할까? 물론 이렇게 해도 결과는 나오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를들어 다른 유저의 댓글이 블라인드 되었고 abc는 그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을뿐 abc의 댓글이 블라인드 되지는 않았을 수 있다.

["abc" AROUND(20) "블라인드" site:inven.co.kr]
반면 이렇게 하면 [abc]와 [블라인드]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글만 나온다. 물론 이 경우에도 abc의 댓글과 가까이에 있던 유저(abc 바로 위나 아래)가 블라인드된 경우에는 나올 수 있지만, 전자에 비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글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90]

세번째로 히토미를 살펴보자. 그냥 [태그]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read online" AROUND(200) "태그"] 같이 했을까? 그 이유는 related galleries(연관 작품)에서도 태그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bc라는 태그가 들어간 작품을 검색하고 싶다고 하자. 물론 [abc site:주소]를 해도 결과는 나온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를들어 작품에는 abc태그가 없고 연관작품에는 abc태그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AROUND(X)를 활용한다면 이런 경우를 어느정도[91] 막을 수 있다. 다시말해 내가 원하지 않는 글을 어느정도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92][93][94] 네 번째로 마나모아를 살펴보자. 찾기(ctrl+f)로 '인기'를 찾아보자. 왜 [인기 100000..]으로 안하고 굳이 [inurl:주소 "전체목록" AROUND(30) "인기 100000.."] [95] 같이 하는 것일까?

마나모아의 경우 작품에도 인기:숫자가 뜨지만 밑에 쭉 내리면 다른 작품에도 인기:숫자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인기 100000..]으로 검색한다면 작품은 인기:숫자가 낮지만 밑의 다른 작품이 인기:숫자가 높은 경우도 결과에 잡힐 수 있다. 즉 원하지 않는 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때 AROUND(X)를 사용한다면 이 같은 경우를 줄일 수 있다. 다시말해 원하지 않는 글을 어느정도 제외시킬 수 있다.

다섯번째로 🔗 디1.1을 보자. 왜 굳이 -"이미지 AROUND(20) A"를 넣은 것일까?

구글에서 디시글을 검색해본 사람이라면 엉뚱한 내용이 나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댓글 밑에 나오는 다른글을 보면 거기에 키워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히토미나 마나모아처럼 글의 제목, 내용, 댓글에는 키워드가 없지만 댓글 밑 다른 글에 키워드가 있는 경우이다. 이때 AROUND(X)를 쓴다면 이 같은 경우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물론 디1.1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96] 상당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 링크를 통해 살펴보자. 내가 '오더'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싶었다면 이는 엉뚱한 내용이 나왔다

고 볼 수 있다. 제목, 내용, 댓글에는 키워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지 AROUND(30) 오더"를 통해 엉뚱한 글을 제외할 수 있다. 반면 내가 '아델'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싶었다면 이는 글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목에 '아델'이라는 키워드가 있음에도 -"이미지 AROUND(30) 아델" 로 인해 글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여섯번째로 🔗 디시짧은글제외에 대해 알아보자. 디시글을 살펴보면 위쪽에 추천과 댓글 등이 표시되어있고 글을 마치는 아래쪽에는 추천, 비추천, 힛추 등이 있다. 만약 글이 길어지게 된다면 위에 있는 '댓글'과 아래에 있는 '힛추'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이를 이용한 것이다. -"댓글 AROUND(255) 힛추"는 '댓글'과 '힛추' 사이의 거리가 255이하인 글을 제외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두 단어 사이의 거리가 255보다 큰 게시물만 검색하겠다는 말과 같다. 255인 이유는 -"댓글 AROUND(1000) 힛추" 같이 숫자가 너무 크면 적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이다. 🔗 255 🔗 256 비교해보자. 그러나 한계점이 있다. 글의 본문에 '댓글'이나 '힛추'가 들어가있다면 장문글임에도 제외될 수 있다. 그리고 글이 거의 없고 이미지만 잔뜩 나열되어 있어도 검색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viewimage를 추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미지가 하나라도 들어간 글은 제외되며, 어떤글은 제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에도 적용되어 -"youtu"와 -"www.youtube.com"을 추가하여 동영상만 있고 글은 짧은 경우를 줄였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생각보다 글이 짧다. 때로는 숫자를 줄여야 긴 글이 뜨는 경우도 있다. 아쉬운 점이 많지만 어느정도 짧은 글을 걸러낼 수 있다.

🔗 이글루스 일곱번째는 이글루스이다. 🔗 # 링크같이 PC에서 덧글 개수가 표시 안되는 경우가 있다. 덧글이 많아지면 '신고'와 '닉네임'[97]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덧글 적은 글을 제외하고자 하였다. 다만 2021년 현재는 사이트가 많이 침체되어서 옛날글밖에 안보인다. 그냥 이런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하면 된다.

여덟번째 응용 방법으로 filetype: 연산자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별표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이를 AROUND(X)를 써서 추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표 개수는 사람인에서 글자수세기를 이용하면 된다. AROUND(X)는 장거리용 별표라는 표현이 떠오른다.
인벤(PC): 🔗 비 🔗 교 🔗 결과[98] 보면 AROUND(X)에서 X=11일 때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별의 개수는 11-1=10개이다. 그리고 실제로 별표를 10개 넣으면 된다.
인벤(모바일[99]): 🔗 비 🔗 교 🔗 결과 별표개수가 17-1=16개이다.
인벤(PC): 🔗 비 🔗 교 🔗 결과 별표개수가 20-1=19개이다.
인벤(PC): 🔗 비 🔗 교 🔗 결과 별표개수가 21-1=20개가 아닌 19개이다.
일베(모바일): 🔗 비 🔗 교 🔗 결과 14-1=13개가 별의 개수이다.
아카: 🔗 비 🔗 교 🔗 결과1 🔗 결과2, 🔗 비 🔗 교 🔗 결과 별의 개수가 77개일줄 알았으나 151개이다.
기존에는 별표를 1개부터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찾아야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편해졌다. 시간도 단축되었다.

여기까지 AROUND(X)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보충 설명하였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9. 별표
별표의 사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검색어가 안 떠오르거나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을 때 쓴다. ex. 특수 * 이론 = 특수 상대성 이론, "추천 * 댓글 100.."
2. 두 단어 사이의 거리를 특정할 때 쓴다. 위의 AROUND(X)를 보고 그냥 AROUND(X)를 쓰면 되는데 왜 번거롭게 별표를 수십개씩 쓰는지 궁금할 수 있다. AROUND(X)는 두 단어 사이의 최대 거리를 제한하고 별표는 두 단어 사이의 특정 거리만 검색한다. '별표의개수+1=거리'라고 하자. 예를들어 "AB" AROUND(10) "CD" 는 AB와 CD사이의 거리가 1인글도, 2인글도, 3인글도 검색된다. 반면 "AB ********* CD" 는 AB와 CD 사이의 거리가 10인 글만 검색된다. -"AB AROUND(10) CD" 는 AB와 CD 사이의 거리가 1인글도, 2인글도, 3인글도 제외된다. 반면 -"AB ********* CD" 는 AB와 CD 사이의 거리가 10인 글만 제외된다. 즉 좀 더 정확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 디시비추

🔗 비추숫자별 🔗 디시비추1
구글 캐시 텍스트 버전(위 사진)을 살펴보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11. 디시 아이디 검색
🔗 아이디검색
🔗 닉네임변경추적
이미지를 보면 원리를 쉽게 알 수 있다. 이 방식의 강점은 아이디가 applejuice같은 일반 명사라도 검색할 수 있다.

12. 개드립넷 댓글 0개 제외
개드립넷에서는 댓글이 0개일 때 '~개의 댓글'이 뜨지 않는다. 이를 이용해 검색할 때 "개의 댓글"을

추가하면 댓글 0개인 글을 제외할 수 있다.

13. 모바일인벤 댓글 0개, 추천 0개 제외

개드립넷과 마찬가지로 검색할 때 "댓글 * 개"를 추가하면 댓글 0개인 글을 제외할 수 있다.

검색할 때 -"조회+*+*+작성시간" 을 추가하면 추천 0개인 글을 제외할 수 있다.

14. PC메벤 닉네임 검색

검색할 때 "메이플스토리+인벤+자유게시판+**********+닉네임" 을 추가하면 해당 유저가 쓴 글을 볼 수 있다. 모바일 인벤은 "닉네임+*+댓글+*+개" 을 추가하면 된다.

15. 디시 검색할 때

검색할 때 위 사진 같은 것이 많이 뜰 때가 있다. 이 때 -"게시글수+*+*+*+30개" 와 -"페이지당+게시물" 을 추가하면 된다.

16. 일베 검색

일베 검색은 PC글과 모바일글로 나뉜다. 먼저 PC글만 검색하기 위해 -"목록으로+건너뛰기" 을 추가하고 -"복사하기+****+숫자" 를 추가하면 된다. 모바일글은 -"복사하기*" 을 추가해 모바일글만 검색되게 한 뒤 이미지가 있다면 "download+****+댓글" 을 추가해 댓글 0개인 글을 제외하고, 이미지가 없는 글은 "목록+**********+댓글" 을 추가해 댓글 0개인 글을 제외한다. -"댓글쓰기*" 나 -"첫+댓글의" 를 이용해 댓글 0개인 글을 제외하는 방법은 안 통한다. 구글 캐시를 보면 첨부고 댓글이고 아무것도 없는 공백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7. 레딧

검색할 때 -"숫자+comments+sorted" 와 -"discussion+숫자+comments" 를 추가하면 댓글 적은 글을 제외할 수 있다.

18. 블라인드

이미지를 보면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19. 나무위키
🔗 예시1 🔗 예시2
🔗 예시3 🔗 예시4
🔗 예시5 🔗 예시6
나무위키 문서를 검색할 때 2가지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다. 바이러스 걸릴 수 있으니 모르는 사이트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20. 여러 방법들

한 사이트에 오직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트를 잘 관찰해보자.

내용은 여기까지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6. 유튜브

🔗 한국 🔗 미국 🔗 일본 🔗 대만 🔗 홍콩 [100] [101]
생방송을 보다보면 왠 캐릭터같은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FaceRig같은 모션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틀
🔗 실시간 🔗 오늘 🔗 전체
🔗 기본 🔗 after 🔗 before
🔗 조회1 🔗 조회2 🔗 조회3
🔗 기본2 🔗 after2 🔗 before2

메이플 예시
🔗 실메 🔗 오메 🔗 전체

기본 after before
조회1 조회2 조회3
기본2 after2 before2

after:와 before:을 이용해 유튜브에서 상세한 날짜를 설정할 수 있다. 가끔 PC에서는 한번만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때 필터>업로드 날짜에서 아무거나 클릭한뒤 한번 더 클릭해서 해제하면(즉 주소에 &sp=EgIQAQ%253D%253D가 생기도록) 된다. 비 교 PC에서 비교해야 차이점이 보인다.[102] 참고로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는 반례가 좀 보여서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시

유튜브 필터의 업로드 날짜순 기능과 youtube upload time이라는 크롬확장프로그램으로 확인해본 결과, 오전0시가 아닌 오후5시가 기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예를들어 after:2021-1-12 검색어는 1월 12일 오전 0시이후부터가 아니라 1월 12일 오후 5시이후부터 이다. 마찬가지로 before:2021-1-11 검색어는 1월 11일 오후 5시 이전까지를 뜻한다. 그러므로 만약 2010년 3월 10일에서 2010년 3월 20일 사이의 영상을 검색하고 싶다면, after:2010-3-9 before:2010-3-21 검색어 같이 해야 누락되는 영상 없이 온전히 검색할 수 있다. 참고로 구글 기간 검색 또한 링크를(cd_min:오늘날짜 cd_max:내일날짜로 할 것) 오후 4시 50분과 오후 5시 이후에 비교해보면 오전 0시가 아닌 오후 5시임을 알 수 있다.

7. 해외 사이트

구글번역 파파고 영사전

단어1 단어2 이미지

4chan[103] 바이두티에바 5ch 레딧[104][105]

깃허브 스택오버플로우 깃허브와 스택오버플로우의 여러글 중 각각 스타와 댓글이 10개 이상인 글만 검색 할 수 있다. A를 지우고 원하는 검색어를 넣으면 된다.

국내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구글링 실력은 영어실력+검색테크닉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만큼 영문 자료는 국내자료와 비교해 압도적이다. 그러나 영어 공부는 힘든 여정이기에 검색테크닉을 익히고 국내에서만 노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 쉽다.

8. 고급 검색

고급 검색
이미지검색
연산자를 도저히 못 외우겠다면 고급 검색을 이용하면 된다.
정말 건망증이 심하지 않다면, 고급검색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한번 문서를 슥 훑어보기를 바란다. 고급검색으로는 h12,w2,m3(12시간, 2주, 3개월) 등 기간설정을 유연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intitle, inurl보다 범용성이 떨어지는 allintitle, allinurl만 가능하다. 또한 ("숫자..숫자 단위")나 (site:주소 OR site:주소) 같이 여러 연산자를 섞을 수도 없다. 특히 숫자범위(number range, ..)는 20xx같은 특수한 경우 아닌 이상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어 진다. 심지어 고급 검색만보고 (-site:주소 를 입력해서 특정 사이트를 제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다시말해, 기본적인 틀만 지원할 뿐이니 그 이상으로 나아가려면 고급 검색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9. 메갤 메벤

댓9이상메갤 추4이하댓5이상메갤 추4이하댓9이상메갤
오늘의메갤1 오늘의메갤2

구글검색 닉메벤1 닉메벤2
숫자별 메벤 추0 숫자별 메벤

이달의 메벤 이주의 메벤 오늘의 메벤

-"조회+*+*+*+추천" = 모바일 인벤에서 추천 0개인 글만 나오게 한다.
+"댓글+*+개" = 모바일 인벤에서 댓글 0개인 글을 제외한다.

10. 디시 검색

🔗 다음1[106] 🔗 다음2[107][108]
🔗 예시1[109] 🔗 예시2[110]
🔗 사용법 🔗 1 🔗 2, 🔗 3 🔗 4 1,2와 3,4를 비교해보자. 결과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sort=timely는 최신순이면서 정확도 또한 고려되었다.

다음 검색을 이용하면 유용하다.

🔗 모바일 🔗 PC 모바일은 ?boardtype=I(대문자 I) PC는 &board_type=album을 추가하면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다.

🔗 이미지디시
🔗 1 🔗 2 🔗 3 🔗 4 1,2와 3,4를 한번 비교해보자. url escape code를 이용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지 검색에서 inurl이 제대로 안 먹히기 때문이다. 🔗 예시 안타깝게도 다음에서는 안 먹힌다. 이제 이미지 검색에서도 특정 갤러리 안에서만 검색할 수 있다.

디시 이미지 검색할 때 검색창에 -imagesize:100x100을 추가하면 좋다. 디시콘을 제외할 수 있다.

🔗 특정닉네임
🔗 고정아이피
🔗 닉네임변경추적
🔗 통신사 IP
디시 추적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아이디" site:dcinside.com 쓰면 된다. 특정하기 어려운 아이디 또는 갤매니저라면 "차단 id 아이디" site:dcinside.com 하면 된다. 고정아이피라면 디1.1에 아이피를 넣어 '참고'할 수 있다. 특정하기 쉬운 고닉/반고닉이라면 디1.1에 닉네임을 넣고 -"닉네임 AROUND(20) 갤로그"를 쓰면 쓴 댓글을 볼 수 있다.
"차단 id 아이디"를 쓰면 아이디가 applejuice같은 경우라도 찾을 수 있다.
A, B가 입력하는 자리이다. inurl: 자리에는 inurl:maplestory 같이 입력하면 된다 -inurl:maplestory 같이 앞에 -를 넣으면 그 갤러리를 제외하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단순히 아이디가 같다고 그 사람을 특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고닉 죽이기 방법 중 '저격하는 사람 아이디로 루리웹을 가입하고 몇달동안 활동한 뒤 그 유저를 근첩으로 모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말투나 사진 등 이를 보충해주는 자료(그런데 사람 말투가 거기서 거기라 말투로 판별해내기는 매우 어렵다)가 없다면 참고 수준밖에 안 된다.

11. 이슈 빠르게 퍼오기

나보다 렉카들이 더 잘 알겠지만 렉카는 속도가 생명임 남들보다 늦으면 중복이라고 비추먹은적 한번쯤은 있을거임

유머챈은 정치글이 금지긴 하지만 이슈가 정치만 있는거는 아니니 자기 마음에 든다 싶은 글 렉카하면 됨

물론 이미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 써봄

1. 네이버 뉴스 속보 🔗 링크

2. 다음 전체뉴스(속보) 🔗 링크

3. 이슈링크 🔗 링크

4. AAGAG 🔗 링크

5. 움짤저장소 유머게시판과 움짤게시판 🔗 링크1, 🔗 링크2
랜덤글 버튼(오른쪽에 R버튼) 누르며 괜찮겠다 싶은 글 퍼오면 됨

6. 빅카인즈 주간이슈 🔗 링크

이 정도 알면 렉카할 때 유용할거임 특히 1번, 2번은 알면 렉카 속도전에서 많이 유리해질거임

이외에 괜찮은 팁 있으면 댓글로 다른 렉카에게 알려주셈

그럼 다들 열심히 렉카하자!

12. 스크롤 캔처

🔗 링크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없이 브라우저 자체에서 스크롤 캡처가 가능하다. 웹 캡처(ctrl+shift+s)를 쓸 때 윈도우의 캡처도구와 달리 스크롤이 가능하다. 인터넷 짤을 퍼올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단 파이어폭스(firefox)[111]와 달리 영역 지정 중 스페이스바나 Page Down 키가 안 먹히는 점이 아쉽다.

13. 기타

"I'm feeling lucky"는 검색 결과의 첫번째 링크로 바로가는 버튼으로, 홈페이지에 이동할 때 편리하다. 운이 좋다면 예측한 검색 결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다.

🔗 # 연산자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말자. 적절한 키워드는 중요한 기본이다. [112]

에펨코리아의 경우 "추천 수 * 댓글 100.." 말고도 "10.. 끝 페이지" 를 이용해 댓글 많은 글을 검색할 수도 있다. 즉 2가지 방법이 있다.

구글 캐시 텍스트 버전을 참고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 ublacklist라는 확장프로그램으로 구글 검색 결과에서 특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 -site:주소가 있지만 매번 입력하기는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보기는 ctrl+h, 기록삭제는 ctrl+shift+delete 이다. 시크릿모드는 ctrl+shift+(p 또는 n) 이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및 기기 관리' -> '관리' 탭 -> '설치되지 않음' 선택 -> 전부 삭제. 자신이 이전에 설치했던 앱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설정 -> Google 설정 -> Google 계정 관리 -> 데이터 및 맞춤설정 -> 활동제어에서 웹 및 앱 활동, 위치 기록, YouTube 기록 삭제 및 일시 중지 & 광고설정에서 광고 개인 최적화 사용 안함. 이를 통해 좀 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모바일 웨일에서 설정>모양및사용설정의 '소프트키 숨기기'와 '상태표시줄 숨기기' 그리고 설정>제스처설정의 '페이지 내비게이션' 이 3가지 옵션이 중요하다. 여기에 구글에 adguard를 검색해서(플레이스토어의 것과는 다르다) adguard 설치하고 설정>DNS필터링에서 adguard dns선택하고 활성화를 누른다. 이제 adguard를 킨 상태에서 웨일로 웹서핑하면 된다. 제스처는 손가락으로 화면 왼쪽 끝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뒤로가기이다. 반대방향으로 하면 앞으로 가기이다. 몇번 해보면 익숙해진다. 단 광고차단이 완벽히 되는 것은 아니라 갤럭시 이용자는 삼브쓰는게 낫다.
위 네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다. 새벽에 몇시간씩 구글링하다보면 위 상태표시줄(상단바)과 소프트키(최근앱,홈키,뒤로가기 있는 거. 네비게이션바라고도 한다.)가 생각보다 눈부시고 거슬린다. 얘네는 블루라이트 차단 어플로도 못 막는다. 그래서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 둘째,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 상태표시줄과 소프트키가 차지하는 부분이 별거 아니어보여도 없애고 구글링 해보면 생각보다 체감이 크다. 셋째, 삼성브라우저의 상태표시줄 숨기기를 이용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브의 상태표시줄 숨기기 기능은 갤럭시 기종 이외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이용자는 아예 설치조차 못한다. 그렇다고 아이폰 이용자나 중국제 태블릿 이용자에게 삼브에 상태표시줄 숨기기라는 좋은 기능 있으니까 그거 쓰지말고 갤럭시 태블릿만 쓰라고 할 수는 없다. 소프트키 숨기기 또한 오래된 기종은 스마트폰에 기능이 없을 수 있다. 이 때 모바일 웨일을 이용하면 상대방이 어떤 폰을 쓰던 상태표시줄과 소프트키를 숨길 수 있는 기능을 누릴 수 있다. 단 사파리를 안써봐서 사파리에 상태표시줄 숨기는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느 위키러는 중국제태블릿+삼브로 새벽 구글링하다가 상태표시줄의 눈부심이 너무 거슬려서 모바일 웨일을 이용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상태표시줄의 눈부심은 블루라이트 차단 어플로도 못 막는다.

구글링으로 자료조사하고 글을 작성할 때 메모장이나 워드패드 대신 리브레오피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 #[113] 컴퓨터나 노트북에 MS오피스나 한컴오피스가 없고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리브레오피스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리브레오피스 writer를 쓰는 것이 메모장이나 워드패드보다 훨씬 낫다. 리브레오피스에서 작성하고 메일이나 USB로 MS오피스나 한컴오피스가 설치된 컴퓨터에 파일을 옮긴뒤 내용을 붙여넣으면 된다. 이 때 '골라 붙이기(Ctrl+Alt+V)>텍스트문서>확인'을 한다. 한컴, MS워드, 워드패드를 살펴보면 각각 폰트, 글씨크기, 줄간격 등이 다를 수 있는데 이때 한 곳에서 작성한 글을 다른 곳에 그냥 붙여넣으면 폰트, 글씨크기, 줄간격 등등 또한 이전의 것이 그대로 옮겨져서 이를 일일이 바꾸어야할 수 있다. 이때 '골라붙이기>텍스트문서'를 쓰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리브레오피스도 같은 맥락으로 골라붙이기를 쓴다고 보면 된다. 🔗 # 🔗 # 🔗 # 단 ODF라는 독자규격을 쓰기 때문에 이미 컴퓨터에 MS오피스나 한컴오피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리브레오피스를 권장하지 않는다. 구입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리브레오피스에서 다크모드를 쓰려면 1. 도구 -> 기본설정 -> 개인화 -> 다크 선택 -> 적용 버튼

누르고 확인. 2. 도구 -> 기본설정 -> 응용프로그램 색상 -> 문서배경, 응용프로그램배경 어두운회색4(검은색으로 하면 표가 안보임) & 글꼴색 회색 -> 저장 -> 이름 입력(ex. 123) 후 확인 -> 적용 버튼 누르고 확인 -> 이제 스키마를 눌러보면 기본설정(Libreoffice)와 내가 만든 설정(ex. 123)이 있는데 왔다갔다 하면 됨. 이 두가지를 하면 된다. 만약 어두운회색4로해도 표가 안보이면 어두운회색3이나 어두운회색2같이 조금씩 밝기를 높여보면 된다. 밤에 문서 작성하려면 필수이다. 🔗 링크의 이미지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쉽다.

특정 문장을 검색할 때 alt+enter(새탭에서 웹페이지 열기)를 이용하면 매우 좋다. 그 문장이 쓰인 탭과 구글 탭을 왔다갔다하지 않아도 된다. alt+d(또는 ctrl+l, 소문자 엘) > 주소창에 문장 입력 > alt+enter 하면 된다.alt+enter를 익스플로러에서 이용하려면 오른쪽위 톱니바퀴 > 추가기능관리 > 검색 공급자 > 추가 검색 공급자 찾기 > 구글 추가[114] > 추가기능관리에서 구글 우클릭하고 기본값으로 설정 클릭 > bing 우클릭하고 제거를 해주면 된다. 크롬은 기본 검색엔진이 구글이라 건드릴 것이 없다. 긴 문장을 검색할 때 특히 동영상에서 보이는 텍스트를 검색할 때 체감이 크다.

그냥 '검색어 디시인사이드'같이 하면 되는데 왜 '검색어 site:dcinside.com'같이 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이는 정확하게 검색하게 위해서이다. 예를들어 '디시인사이드 나무위키'라고 검색하면,
디시에서 나무위키를 언급하는 글 -> '나무위키 site:dcinside.com'
나무위키에서 디시를 언급하는 글 -> '디시인사이드 site:namu.wiki'
둘 다 아닌 사이트에서 디시와 나무위키를 언급하는 글 -> '디시인사이드 나무위키 -site:dcinside.com -site:namu.wiki'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다.
site:gall.dcinside.com이나 site:m.dcinside.com보다는 site:dcinside.com이 좋다. 모바일글과 PC글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예시 구글창에 보이는 주소와 구글 캐시된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에서 m.으로 시작하는 글도 PC버전으로 바꿔보면 www.으로 바뀌는 경우를 볼 수 있고, PC버전에서 www.인 글도 캐시를 들어가보면 모바일 양식인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디시(pc)에서 하이퍼링크 달 때, 텍스트 드래그 > url버튼 클릭 > 주소 입력 > 확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모바일 웹브라우저에서 글/댓글 등록이 안 될 때가 있다. pc버전으로 바꾼뒤 글/댓글을 쓰고 등록해보자. 아니면 그냥 광고차단을 끄면 된다.(삼성브라우저) 참고로 pc 인스티즈를 들어가면 게시글 내용이 안 보이는데, 광고차단을 끄거나 광고차단을 차단하면 된다. 참고.

디시에서 통피, VPN 글쓰기 제한이 있을 때, VPNGate를 이용하여 Uptime이 최근(며칠 안된)인 IP를 이용하면 글쓰기 제한을 우회할 수 있다. Uptime을 클릭하면 최근순/오래된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 최근에 올라온 IP는 제한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방법은 디시인사이드와 아카라이브 둘다 된다.
스마트폰에서 통피(통신사 IP)인 상태에서 1.1.1.1을 계속 껐다켰다 하며 확인하다보면 아카라이브 글쓰기 제한이 우회될 때도 있다. 다만 이 방법은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껐다켰다를 글쓰기 제한이 우회될 때까지 해야하다보니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다.

일부 기종이 삼성브라우저 애드가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 최근앱버튼[115] 눌렀을 때 애드가드가 있는 상태에서 삼성브라우저에 들어가면 작동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안 된다면 한번 시도해보자.

커뮤에 구글 링크를 올릴 때 "를 "로 바꿔줘야 링크가 제대로 만들어진다.

메모장(프로그램)에서 바꾸기(Ctrl+H) 기능은 인터넷브라우저에서 검색기록이다.

🔗 모바일 문피아 베스트 무료 오늘에서 🔗 정규표현식 확장앱을 사용하여 조건에 맞는 소설을 찾을 수 있다. 맨 아래로 내려서 마지막 순위 작품까지 확인한 뒤 실행해야 누락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END키를 누르면 빠르게 페이지 맨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참고로 문피아 검색에서 한 글자를 검색할 때 한 글자 뒤에 %같은 특수문자를 넣으면 검색이 된다. 그리고 게시판 및 작품 검색시, 새 검색어 및 카테고리를 적용하고 싶을 경우, 검색 취소를 누르지 않고 새 검색어를 입력한 후 엔터를 쳐도 된다.

> 화수 별 검색
> - [1-9]화 = 1화~9화
>
> 조회수 별 검색
> - ₩d만 = [0-9]만 = 0만~9만
> - ₩d₩.₩d만 = [0-9]₩.[0-9]만 = 0.0만~9.9만
> - 1₩d만 = 1[0-9]만 = 10만~19만(단 10.1만, 12.5만, 17.6만 등은 검색 안됨)
> - 1₩d₩.₩d만 = 1[0-9]₩.[0-9]만 = 10.0만~19.9만(단 10만, 11만,...,19만은 검색 안됨)

- 1₩d만|1₩d₩.₩d만 = 10.0만~19.9만(단 10.12만, 11.345만, 17.6789만 등은 검색 안 됨)

기타

- ₩특수문자(₩| 나 ₩. 같이) = 문법 무효화

이를 이용하면 특정 화수까지 연재한 소설과 편당 조회수를 별도로 검색할 수 있다.

1~9화 /총 조회수 1~99.9만

- 총 [1-9]화 ₩| [1-9]만|총 [1-9]화 ₩| [1-9]₩.₩d만|총 [1-9]화 ₩| [1-9]₩d만|총 [1-9]화 ₩| [1-9]₩d₩.₩d만

10~29화 /총 조회수 10~999.9만

- 총 [1-2]₩d화 ₩| [1-9]₩d만|총 [1-2]₩d화 ₩| [1-9]₩d₩.₩d만|총 [1-2]₩d화 ₩| [1-9]₩d₩d만|총 [1-2]₩d화 ₩| [1-9]₩d₩d₩.₩d만

10~19화 /총 조회수 10~999.9만조회

- 총 1₩d화 ₩| [1-9]₩d만|총 1₩d화 ₩| [1-9]₩d₩.₩d만|총 1₩d화 ₩| [1-9]₩d₩d만|총 1₩d화 ₩| [1-9]₩d₩d₩.₩d만

20~29화 /총 조회수 20~999.9만조회

- 총 2₩d화 ₩| [2-9]₩d만|총 2₩d화 ₩| [2-9]₩d₩.₩d만|총 2₩d화 ₩| [1-9]₩d₩d만|총 2₩d화 ₩| [1-9]₩d₩d₩.₩d만

30~39화 /총 조회수 30~999.9만조회

- 총 3₩d화 ₩| [3-9]₩d만|총 3₩d화 ₩| [3-9]₩d₩.₩d만|총 3₩d화 ₩| [1-9]₩d₩d만|총 3₩d화 ₩| [1-9]₩d₩d₩.₩d만

100~109화 /총 조회수 100~9999.9만조회

- 총 10₩d화 ₩| 1[0-9]₩d만|총 10₩d화 ₩| 1[0-9]₩d₩.₩d만|총 10₩d화 ₩| [2-9]₩d₩d만|총 10₩d화 ₩| [2-9]₩d₩d₩.₩d만|총 10₩d화 ₩| [1-9]₩d₩d₩d만|총 10₩d화 ₩| [1-9]₩d₩d₩d₩.₩d만

110~119화 /총 조회수 110~9999.9만조회

- 총 11₩d화 ₩| 1[1-9]₩d만|총 11₩d화 ₩| 1[1-9]₩d₩.₩d만|총 11₩d화 ₩| [2-9]₩d₩d만|총 11₩d화 ₩| [2-9]₩d₩d₩.₩d만|총 11₩d화 ₩| [1-9]₩d₩d₩d만|총 11₩d화 ₩| [1-9]₩d₩d₩d₩.₩d만

200~209화 /총 조회수 200~9999.9만조회

- 총 20₩d화 ₩| 2[0-9]₩d만|총 20₩d화 ₩| 2[0-9]₩d₩.₩d만|총 20₩d화 ₩| [3-9]₩d₩d만|총 20₩d화 ₩| [3-9]₩d₩d₩.₩d만|총 20₩d화 ₩| [1-9]₩d₩d₩d만|총 20₩d화 ₩| [1-9]₩d₩d₩d₩.₩d만

1~99화 /평균 조회수 n만대~999.9만조회(1만대,10만대,20만대,30만대,...,90만대)

- 총 [1-9]화 ₩| [1-9]만|총 [1-9]화 ₩| [1-9]₩.₩d만|총 [1-9]화 ₩| [1-9]₩d만|총 [1-9]화 ₩| [1-9]₩d₩.₩d만|총 1₩d화 ₩| [1-9]₩d만|총 1₩d화 ₩| [1-9]₩d₩.₩d만|총 1₩d화 ₩| [1-9]₩d₩d만|총 1₩d화 ₩| [1-9]₩d₩d₩.₩d만|총 2₩d화 ₩| [2-9]₩d만|총 2₩d화 ₩| [2-9]₩d₩.₩d만|총 2₩d화 ₩| [1-9]₩d₩d만|총 2₩d화 ₩| [1-9]₩d₩d₩.₩d만|총 3₩d화 ₩| [3-9]₩d만|총 3₩d화 ₩| [3-9]₩d₩.₩d만|총 3₩d화 ₩| [1-9]₩d₩d만|총 3₩d화 ₩| [1-9]₩d₩d₩.₩d만|총 4₩d화 ₩| [4-9]₩d만|총 4₩d화 ₩| [4-9]₩d₩.₩d만|총 4₩d화 ₩| [1-9]₩d₩d만|총 4₩d화 ₩| [1-9]₩d₩d₩.₩d만|총 5₩d화 ₩| [5-9]₩d만|총 5₩d화 ₩| [5-9]₩d₩.₩d만|총 5₩d화 ₩| [1-9]₩d₩d만|총 5₩d화 ₩| [1-9]₩d₩d₩.₩d만|총 6₩d화 ₩| [6-9]₩d만|총 6₩d화 ₩| [6-9]₩d₩.₩d만|총 6₩d화 ₩| [1-9]₩d₩d만|총 6₩d화 ₩| [1-9]₩d₩d₩.₩d만|총 7₩d화 ₩| [7-9]₩d만|총 7₩d화 ₩| [7-9]₩d₩.₩d만|총 7₩d화 ₩| [1-9]₩d₩d만|총 7₩d화 ₩| [1-9]₩d₩d₩.₩d만|총 8₩d화 ₩| [8-9]₩d만|총 8₩d화 ₩| [8-9]₩d₩.₩d만|총 8₩d화 ₩| [1-9]₩d₩d만|총 8₩d화 ₩| [1-9]₩d₩d₩.₩d만|총 9₩d화 ₩| [9-9]₩d만|총 9₩d화 ₩| [9-9]₩d₩.₩d만|총 9₩d화 ₩| [1-9]₩d₩d만|총 9₩d화 ₩| [1-9]₩d₩d₩.₩d만

참고로 국가자료종합목록에서 정규표현식을 이용해 많은 도서관이 소장한 책을 검색할 수 있다. 왼쪽 검색결과제한의 주제별에서 문학을 고르면 소설이 나온다.

국가자료종합목록
regex101
Regex Search

검색결과 주소에 'pageSize=숫자'에서 숫자를 몇백 몇천으로 바꿀 수 있다.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면 숫자를 조금 줄여보자. 키워드마다 적당한 숫자가 다르다. 가능한 큰 숫자로 하기를 권장한다.

국가자료종합목록에서 검색 -> 주소에 'pageSize=숫자' 변경 -> 전체 복사(Ctrl+A, Ctrl+C) -> regex101에서 붙여넣기(Ctrl+V) -> regular expression과 test string 사이의 검색창에 아래 텍스트 복사해서 붙여넣기 -> match information에서 match1, match2,... 클릭

국가자료종합목록 검색창에 %만 넣으면 모든 책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는 반복을 표현하며 +앞의 문자가 한번 이상 반복됨을 의미한다. 🔗 # ₩d개는 0개~9개만 검색하지만 ₩d+개는 0개~9개는 물론 10개 150개 2500개 등도 검색된다.

> 50개 이상 도서관 소장
> [5-9]₩d개 도서관 소장|[1-9]₩d₩d+개 도서관 소장
> 100개 이상 도서관 소장
> [1-9]₩d₩d+개 도서관 소장
> 200개 이상 도서관 소장
> [2-9]₩d₩d개 도서관 소장|[1-9]₩d₩d₩d+개 도서관 소장

정규표현식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과정이 번거로워서 실제로 쓰기는 귀찮다.

키워드 스터핑을 일삼는 블로그가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음... 진짜 정말 광고 극혐이다.....~~

related는 영 별로다. 🔗 예시

다음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해 스팸인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있다. 🔗 예시

니코동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맨밑에 language(언어)를 일본어로 바꾸자. 언어에 따라 보이는 코멘트가 희한하게 다르다.

픽시브 회원가입을 할 때 생년월일을 다르게 입력해도 된다. 애초에 해외사이트는 한국처럼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 # 픽시브는 구글링 보다는 10000users入り같은 태그를 쓰는 것이 좋다.

여기 🔗 #에서도 일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기하게도 (벤젠 에반)과 ("벤젠" "에반")의 결과가 다르다.

(애국가 -intitle:애국가)의 결과가 안 나온다. 🔗 # 얘같은 경우가 있는데도 말이다.

intitle:"A"가 맞는지 "intitle:A"가 맞는지, 둘다 맞는지 모르겠다.

🔗 링크1에서 ""가 괄호처럼 묶어주는 기능도 있다던데, 회의적이다. [116] 1. 먼저 intitle과 OR 중에 누구를 먼저 계산하는지를 모른다. +-와 ×÷가 섞인 식에서 누구를 먼저 계산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intitle 우선이라면 intitle:a OR b ≠ intitle:a OR intitle:b. OR우선이라면 intitle:a OR b = intitle:a OR intitle:b. +-와 ×÷ 중에는 ×÷를 먼저 계산한다고 널리 알려져있으나, intitle과 OR 중에서 누구를 먼저 계산하는지는 알려져있지않다. 2. 🔗 링크2 괄호()의 존재를 발견했다. 또한 여러곳을 뒤져봐도 ""가 괄호같은 기능을 한다고 말하는 곳은 보지 못 했다. [117] 위와 관련하여 잘 아는 위키러가 있다면 추가 바람.
-> intitle"동해물과 * 백두산이" 와 intitle:(동해물과 * 백두산이) 를 비교해보자. 쌍따옴표와 괄호가 같지 않다. 그러므로 intitle:(a OR b)방식으로 써야한다. 단, intitle:"합의 안 해" 를 보면 제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아 정확하게 검색한다는 기능은 맞다.
-> intitle:(애국가 동해물과) 괄호가 실제로 작동하는 연산자 맞는지 회의적이다.

여담으로, 문서의 '검색창에서의 괄호 연산자'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듯하다. 구글 검색 연구과학자인 Daniel M. Russell의 글 🔗 #에서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 이 글은 여기 🔗 #에서 보았다. Daniel M. Russell은 '검색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하다. 다만 정말 이 사람이 쓴 것이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검색창에서의 괄호 연산자'와 별개로 '주소창에서의 괄호 연산자'는 작동할 수도 있다 🔗 #. 내가 틀렸을 가능성도 있다.

문서가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자. 하루만에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

당연하지만 **이 문서의 내용이 틀릴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교차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위

키러 본인도 *나 AROUND가 너무 헷갈린다. 또 쌍따옴표와 괄호도 헷갈린다. (괄호 연산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있다면 쌍따옴표와 차이가 무엇인지)

검색을 하다보면 일정 수준 이상은 책과 논문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얀습

14. 한계점과 극복

검색이 만능은 아니다.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검색할 수 없다. 인터넷을 하다보면 수많은 정보를 보게 된다.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정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존재초자 몰랐기에 검색도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교육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내 지식의 한계를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나에게 전체 그림을 보여줘서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해주고 내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해준다. 아무것도 모르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초등학생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이상 '근의 공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지도 모를 것이다. 당연히 검색할 수도 없다. 경제학과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콥 더글라스 생산곡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지도 모를 것이다. 당연히 검색할 수도 없다. 그리고 교양서 수준의 책만 읽고 '나는 경제학에 대해 좀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 교양 수준의 과학책만 읽고 나 공학 좀 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학부를 졸업하고 난 뒤 나는 이제 이 학문에 대해 좀 알고 있다는 자만심이 들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대학원 수준의 경제학, 공학에서 배우는 개념을 모른다. 그 때문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검색할 수도 없게 된다.

정말 큰 문제는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딱히 부정적인 신호가 오지 않는다. 초등학교 수준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지식은 몰라도 사는 데 큰 지장이 없다. 특히 단순노동이라면 더욱 그렇다. 경제적인 가난은 배고픔과 박탈감이 나에게 내 경제적 상황을 알게 해준다. 수학문제는 내가 문제를 틀렸다면 아직 완벽하게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책을 펼쳤을 때 모르는 말이 나온다면 내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러나 내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해도 특별한 부정적 신호가 없다. 오히려 만족감이 들고 자만심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지식을 몰라서 어떤 불편함이 생긴다해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반대로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전체 그림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 맞는지 계속 스스로를 의심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된다.

많이 아는 사람은 그것을 바탕으로 더 많은 지식을 접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된다. 반면 지식이 빈약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다. 때문에 지식을 쌓기가 엄청 힘들다. 키워드를 모르니 검색을 통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 아니, 애초에 검색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정보를 찾아야할 필요성 자체를 못느끼게 된다. 고작 책 몇 권과 유튜브만 본 뒤 나는 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내 지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알기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게 된다.

돈이 돈을 벌듯이 지식이 지식을 불러들인다. 지식의 양극화는 결코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보통 정보 격차하면 노인이나 저소득층이 주로 예시로 나오지만 인터넷 잘다루는 젊은 사람도 상대적으로 나을 뿐 고급 정보에서 정보 양극화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조언을 적어두었다.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공공기관 웹사이트

🔗 설명1, 🔗 설명2, 🔗 설명3
1. 정부24 정부/지자체 조직도 🔗 #
2. 정부24 정부/지차체 운영 누리집 🔗 #
3. 관련 사이트(패밀리 사이트), 사이트맵, 배너목록 살펴보기.
4. 구글에서 xxx site:go.kr OR site:gov.kr 검색해보기 or.kr이나 re.kr이나 ac.kr도 검색해보기.
5. xxx pdf 같이 검색해보기.
6. 구글에서 xxx 협회같이 검색해보기.
7. NCS 살펴보기.
8. 행정안전부의 정보화 표준, 지침 자료실의 노플러그인 웹사이트 목록 살펴보기.
9. 유용한 사이트 모음 🔗 #

> 학문

> 구분

🔗 설명
초중고 교육과정 🔗 #
서울대 커리큘럼 🔗 #
서울대 수강신청 🔗 #
학문분류 🔗 #
구글 스칼라 인용순 정렬 🔗 #

> 기사

🔗 설명
1.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 한국 기자상 & 공적설명서 🔗 #, 🔗 #, 🔗 #
2. 빅카인즈 주간이슈 🔗 #
3. 팩트체크넷 🔗 #

> 잡지

🔗 설명
1. 우수콘텐츠잡지 배포관리 시스템 🔗 #
2.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시스템 🔗 #
3. 모아진 🔗 #
4. G-Zone (정부 간행물) 🔗 #
5. 추천 간행물 몇개 🔗 #

> 책[118]

🔗 설명
1.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추천도서 🔗 #
2.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에게물어보세요 FAQ 🔗 #
3.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에게물어보세요 지식정보DB 🔗 #
4. 각종 책사이트의 스테디셀러
5. 구글 검색 🔗 #
6.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 🔗 #

설명을 보면 이해하기 좀 더 쉬울 것이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

15. 정 모르겠다면

1. 🔗 커뮤기본1, 🔗 커뮤기본2를 이용하자. A에 키워드를 넣으면 된다.

2. 🔗 디시1[119] 🔗 디시2[120] 🔗 디시3[121] 🔗 디시4[122] 🔗 루리웹 🔗 펨코 🔗 아카 🔗 인벤 🔗 블로그
🔗 사용법 A에 키워드를 넣으면 된다

3. inurl: 연산자로 특정 갤러리만 검색할 수 있다. (ex. inurl:baseball_new9) 반대로 뺄 수도 있다. (ex. -inurl:baseball_new9)

4. 유용하게 쓰길 바란다. 내용이 많아서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우 유용한 내용들로 채웠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

16. 부탁

이 정보를 여기저기 퍼트려주면 감사드린다. 커뮤니티 SNS 블로그 등등 종류 불문하고 퍼가도 된다. 2020년인데도 (2010년..2021년) 같은 엉터리 정보가 퍼져있다.[123] 물론 내가 100%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고 싶다.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다. 상대방이 긴 글 읽기 귀찮아 한다면 '정 모르겠다면'을 올리면 된다.

---

[1] 기사 검색할 때 반드시 상세검색에서 검색어 처리를 '형태소/바이그램 분석'으로 바꿔야한다

[1] 기사 검색할 때 언론사 상세검색에서 검색어 지정을 '형태소/바이그램 분석'으로 해야한다. 예를들어 # 이 기사를 검색하기 위해 '투자하지 말란법'이라고 검색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반면 형태소/바이그램으로 바꾸면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의 글만 검색되므로 기간 상관없이 검색하고 싶다면 기간에서 '전체'를 선택해야한다. # 단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018년 이전의 기사는 검색할 수 없다.

[2] 다른 사이트는 이슈링크(16개)보다 커뮤니티 개수가 적거나 세부검색 기능이 아쉬웠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더 좋은 사이트가 있다면 추가 바람.

[3] 디시, 해연갤, 가생이, 네이트판, 개드립이 없다.

[4] 커뮤를 16개 다루는 이슈링크가 무조건 좋은줄 알았는데 비교결과 누락되는 글이 보여서 상황에 따라 AAGAG를 쓰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단 AAGAG는 이슈링크에 비해 커뮤개수가 적고 검색기능이 아쉽다.

[5]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939911 https://pgr21.com/?b=10&n=346574

[6] (&tbs=qdr:n/h/d/w/m/y숫자). 각각 1분, 1시간, 1일, 1주, 1달, 1년. 숫자를 붙이면 그 숫자만큼.

[7] 커뮤4는 number range와 AROUND(X)를 결합시킬 때 쓴다.

[8] 댓글이 100개가 넘는다면 무조건 답글순으로 보는 것이 좋다. 등록순은 쓰레기다. 등록순은 오래된 댓글부터(댓글을 등록한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이게 전체가 아니라 각 페이지마다 따로따로 적용된다. 즉 등록순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보게되는 댓글이 가장 오래된(가장 먼저 단) 댓글이 **아니다**는 말이다. 답글순으로 해야만 제대로 정렬이 된다. 못 믿겠다면 댓글 100개가 넘는 글에서 댓글이 달린 시간에 주목해보자. 댓글 100개이상의 글에서 등록순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9] inurl:maplestory 같이 특정 갤러리 내에서 검색할 수도 있다.

[10] 앞에 inurl 있는 건 AROUND(X)와 ..(숫자범위)를 결합할 때 쓴다

[11] A에 키워드를 넣으면 된다. 제목, 본문, 댓글이 아닌 영역(댓글 밑에 있다)에 키워드가 있을 때, 제목, 본문, 내용은 키워드와 전혀 연관이 없음에도 잡혀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아무 문제없는 글을 삭제할 가능성도 있다.

[12] 그 영역에서 키워드가 잡힐 때 '이미지(글제목) ... 조회' 같이 된것을 이용한 것이다. 게시글은 '조회수'이지만 그 영역은 '조회'이다. "A AROUND(X) B"는 순서가 강제된다는 점 또한 이용했다.
-"댓글+0" 대신 inurl:recommend=1 을 써도 된다.

[13] 엉뚱한 글이 자꾸 나와 짜증난다 싶을 때 쓰면 된다. 멀쩡한 글이 날아갈 수도 있단 게 아쉽긴 하다.

[14] 여러키워드를 하려면 디1.1에서 -"이미지+AROUND(20)+A+OR+B+OR+C"+A+B+C 같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검색하다보니까 "A+AROUND(20)+B+OR+C" 방식이 제대로 걸러내지를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디1.2~1.5를 보다시피 너무 늘어지는게 별로여서 이 방식을 했었는데 어쩔수 없나 싶기도 하다. 만에 하나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추천바란다.

[15] 다만 디1.1이 100% 완벽하지는 않다. '이미지'라는 키워드를 찾기(ctrl+f)해보면 알 수 있다. 그래도 상당량의 글을 지울 수 있다.

[16] -"댓글 1*"하면 댓글 1개말고 10개 11개 이런것도 삭제되는줄 알았는데 1개인 글만 삭제되는 것을 보고 만들었다.

[17] 추천 10개 이상 댓글 10개 이상.

[18] 추천 5개 이하 댓글 5개 이상.

[19] 추천 5개 이하 댓글 9개 이상.

[20] 글자 수 제한 때문에 디1.4이상부터는 숫자별을 이용해야한다

[21] pc버전

[22] 커뮤1에 qdr:d와 intitle:나무위키를 추가한 것이다.

[23] 더쿠가 qdr이 제대로 안 먹혀서 뺐다.

[24] # 참고로 구글은 대부분의 특수문자를 잘 인식하지 못 한다. 그러므로 문자와 문자사이에 특수문자가 있다면 (공백)이나 *을 넣어야 한다. # (공백)과 *중에 뭐가 더 좋은지는 그때그때 다르다. 그래서 둘다 해보는 것이 좋다.

[25] "100번째코멘트" 라는 키워드를 추천한다. #참고.

[26] 대체로 답글순으로 보는 것이 좋다.

[27] inurl:maplestory 같이 특정 갤러리 내에서 검색할 수도 있다.

[28] m.을 www.으로, watch?v=을 embed/로 바꾸면 된다.

[29] 단 intitle:"나무 위키" 같은 경우도 있다.

[30] :has-text(/()/m) 복사해서 응용하자. 단 ublock origin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adguard 등 다른 곳에선 안 될 수 있음)

[31] 각각 1분, 1시간, 1일, 1주, 1달, 1년. 숫자를 붙이면 그 숫자만큼.

[32] ?-도움말, H-뒤로, L-앞으로, t-새탭, x-탭닫기 등. H,L이 귀찮다면 vimium옵션에 들어가 'Custom key mappings'칸에 'map a focusInput (엔터) map j previousTab (엔터) map k nextTab' (a-검색창에 커서, j-왼쪽탭으로이동, k-오른쪽탭으로이동)을 입력하고 밑의 'Save Changes'를 선택하면 된다. 그외 다른 키를 하고 싶다면 'Show available commands'를 클릭해 괄호안의 문자를 입력하면 된다.

[33] 참고로 c-?는 ctrl+?, a-?는 alt+?이다.

[34] 🔗 도움말 에디트박스를 검색창으로 해석하면 이해하기 쉽다. 숫자+gi는 🔗 여기서 실험해보면 된다. 꼭 숫자+gi를 할 필요는 없고 tab키를 눌러도 된다.

[35] space(=pagedown), shift+space(pageup), backspace(alt+왼쪽방향키, 뒤로), shift+backspace(alt+오른쪽방향키, 앞으로), ctrl+t(새탭열기), ctrl+w(탭닫기), ctrl+tab(탭전환), alt+d(또는 ctrl+l, 주소창), win+l(잠금)

[36] keytweak같은 키매핑 프로그램을 통해 오른쪽 ctrl을 왼쪽 ctrl로 키매핑 해두면 편하다.

[37] 모든 자바스크립트 차단이 ||*.js 인지는 모르겠다. 잘 아는 사람이 수정 바람.

[38] 만약 내 pc가 안 뜨고 바로가기가 뜬다면, 폴더옵션>파일탐색기열기:바로가기 부분을 내 pc로 변경 > 적용

[39] 검색어, 유의어1, 유의어2...가 검색되는 상황에 검색어만 뺀다면 유의어만 남아야한다.

[40] language restriction, host language, country restriction, geolocation

[41] 두가지 발견된 사실로, &gl=??은 '설정>검색환경설정>지역설정'인 것이 확인되었다. 발견과정을 적는 이유는, gl은 lr, cr, hl과 달리 변경을 해도 설정에 들어가면 '현재 지역'그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고있는건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1. 🔗 1, 🔗 2, 🔗 3, 🔗 4, 🔗 5와, 🔗 여기에서 '설정>검색환경설정>지역설정'에 들어가 변경한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gl=??만 일치했다. 2. 설정에 들어가 ctrl+shift+c>>지역설정부분 선택 할 시, name="gl"이 나온다. hl도 같은 원리로 확인할 수 있다.

[42] hl도 우회가 되긴하나, '설정>검색환경설정>지역설정'에 들어가서 바꾼 결과와 비교해, 인터페이스 언어도 바뀌어 있는데다 맨밑에 'south korea'(남한)라고 되어있다.

[43] 구글문서를 보면 "google.com/ncr이나 google.co.uk 등을 이용하더라도 언어가 한국어라면 세이프서치가 강제 적용된 google.com로 검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오게 한다."라는 말이 있다. hl을 바꿔도 성인인증을 우회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4] 🔗 링크 글 내용이 대부분 일본어이고, 일본리그오브레전드사이트가 나온다.

[45] 🔗 링크 맨위와 맨밑이 일본어로 바뀌었지만,글 내용이 대부분 한국어이고, 한국리그오브레전드 사이트가 나온다.

[46] 🔗 링크 성인인증 우회 실패가 근거이다.

[47] 문서 URL의 최상위 도메인(TLD)이나 웹 서버의 IP 주소의 지리적 위치를 통해 문서의 국가를 결정한다. 🔗 출처 그래서 🔗 여기는 .jp인 주소가 자주 보이고 🔗 여기는 .kr인 주소가 자주 보인다.

[48] 이 때문에 cr은 거의 쓸일이 없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같이 범세계적인 사이트를 검색하는데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 비 🔗 교해보자.

[49] 🔗 링크 성인인증 우회 성공이 근거이다.

[50] 중국은 gl이 없다.

[51] 특정 사이트만 치우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럴때는 그 사이트를 제외해줘야 한다.

[예시4] (site:유튜브+OR+site:다른주소+"100000..1000000+views"&lr=lang_ko)로 여러 사이트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다. 티비플이 폐쇄된 뒤로 뭘 넣어야 할지 몰라 이런식으로 남겼다.

[53] 2기본=키워드를 2개 넣으면 되는 기본틀. 그러므로 1기본은 없다.

[54] 🔗 원래 numrange와 AROUND(X)는 호환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 6번예시의 결

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실험해본 결과, inurl을 이용하면 눌의 소압이 가능하나는 결론이 나왔나.

[55] 🔗비 🔗교근데 왜 inurl을 넣으면 가능해지는지는 모르겠다. site도 안 되던데... 신기하다.

[56] 단 AROUND(X)는 앞뒤 순서는 안 따진다. 즉 "A" AROUND(5) "'B" = "B" AROUND(5) "'A" = "A * B" OR "B * A" = "B * A" OR "A * B" 이다.

[57] 그런데 거리 단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cm나 m같은 건 아닐테고. 잘 아는 사람이 추가 바람.

[58] pc에서는 URL부분을 한번 클릭(또는 alt+d나 ctrl+l)하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바로 오른쪽 맨 끝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원하는대로 수정하면 된다.

[59] +-"A B"+-"B A" 를 추가할 수도 있다.

[60] 물론 두가지 방식 모두 댓글이 100개가 넘어 댓글이 접히면 검색이 안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61] 가끔 작품 바로 밑에 있는 연관작품의 태그가 잡힐 때도 있긴 하다.

[62] 현재는 사이트가 폐쇄되어서 아카이브를 이용했다.

[63] 🔗#아카이브에서 링크는 안 누르는 것이 좋다

[64] 참고로 (intitle:0화 OR intitle:1화)는 100-1화 같은 것도 검색이 돼서 ("1/2..10+*인기")같이 하는 것이 좋다.

[65] inurl을 넣은 이유는 커뮤4와 같다.

[66] 검색하다보면 디1.1을 써도 댓글 밑 다른 글에 키워드가 잡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게시글에 abc가 있고 댓글 밑 다른 글에도 abc가 있을 경우, 게시글에 abc가 들어 있지만 검색결과에서 제외된다. 누락되는 글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67] '-intitle:https'는 https 검열 사건을 제외하기 위해서 추가하였다.

[68] '-intitle:https'는 https 검열 사건을 제외하기 위해서 추가하였다.

[69] 더쿠는 제대로 검색이 안되서 아예 빼버렸다. 구글 캐시로 확인해보니 이미지마다 링크가 보였는데 이 때문으로 추측된다.

[70] 글자수 제한때문에 커뮤를 둘로 나눴다.

[71] 글자수 제한때문에 커뮤를 둘로 나눴다.

[72] '-intitle:https'는 https 검열 사건을 제외하기 위해서 추가하였다.

[73] 물론 32단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댓글 100개 이상인 글만 검색하는 등 숫자가 커진다면 후자를 써야한다.

[74] best는 최신순 포텐 best2는 화제순 포텐을 뜻한다.

[75] 모바일 인벤의 경우 댓글이 0개일 때 '댓글 0개'라고 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뜨다보니 댓글 0개인 글이 뜰 수 있다. "댓글 * 개"는 모바일 인벤글 중 댓글 0개인 글을 제외하는 역할을 한다.

[76] "댓글+*+공유하기"+OR+"댓글+*+이+글에" 를 추가(댓글을 막은 블로그글을 제외)했을 때 누락되는 블로그글이 보여 뺐다.

[77] AROUND(X)는 댓글 0개인 글을 제외해주는 역할을 한다. 링크를 이용할 때 댓글 적은 글이 뜰 수 있다.

[78] '티스토리' 링크로는 pc버전 글을 검색할 수 없다. 그러므로 '티스토리' 링크로 검색한뒤 티스토리2를 쓰면 된다.

[79] 🔗링크를 보면 티스토리3를 만든 원리를 알 수 있다. 단 pc버전글은 양식이 블로그마다 조금씩 달라서 댓글 0개인 글이 많다. 공감이 10개 이하인 글이 뜰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티스토리'에 비해 티스토리3가 마음에 안들긴한데 어쩔 수 없다. '이전 댓글 더보기'를 이용하려해도 댓글이 적거나 없는글에도 '이전 댓글 더보기'가 있을 수 있어서 쉽지 않다. 모바일 버전은 양식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만 pc버전글은 블로그마다 양식이 달라서 답이 없었다. 🔗링크같이 구글에서 보이는 공감수(13개)와 실제 블로그 들어가면 보이는 공감수(1개)가 다를 때도 있어서 더 어렵다.

[80] 추천 10개 이상 댓글 10개 이상.

[81] 추천 5개 이하 댓글 5개 이상.

[82] 추천 5개 이하 댓글 9개 이상.

[83] 디시글을 살펴보면 위쪽에 추천과 댓글 등이 표시되어있고 글을 마치는 아래쪽에는 추천, 비추천, 힛추 등이 있다. 만약 글이 길어지게 된다면 위에 있는 '댓글'과 아래에 있는 '힛추'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댓글 AROUND(255) 힛추"는 '댓글'과 '힛추' 사이의 거리가 255이하인 글을 제외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두 단어 사이의 거리가 255보다 큰 게시물만 검색하겠다는 말과 같다. 255

인 이유는 -"댓글 AROUND(1000) 힛추" 같이 숫자가 너무 크면 적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이다. 🔗255 🔗256 비교해보자. 그러나 한계점이 있다. 글의 본문에 '댓글'이나 '힛추'가 들어가있다면 장문글임에도 제외될 수 있다. 그리고 글이 거의 없고 이미지만 잔뜩 나열되어 있어도 검색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viewimage를 추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미지가 하나라도 들어간 글은 제외되며, 어떤글은 제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에도 적용되어 -"youtu"와 -"www.youtube.com"을 추가하여 동영상만 있고 글은 짧은 경우를 줄였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생각보다 글이 짧다. 아쉬운 점이 많지만 어느정도 짧은 글을 걸러낼 수 있다. 맨날 보는 한두줄짜리 글 말고 좀 긴 글을 볼 수 없을까해서 만들어보았다. 비록 조금이지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84] 라이킷은 likeit이다. 댓글 0개인 글이 뜰 수 있다.

[85] 🔗비 🔗교 -"라이킷+*+0+.."같이 한 이유이다.

[86] 모바일은 한페이지에 40개이므로 10페이지는 댓글 400개이다. pc는 50개이다.

[87] 바이럴 게시글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

[88] 참고로 임시조치된 문서 역사에 들어가 옛날 버전을 보면 임시조치 되기 전 내용을 볼 수 있다.

[89] 🔗# 여기 있는 서점 중에서 🔗# 이 링크 처럼 제목을 검색했을 때 결과가 안 나오거나 🔗# 이 링크 처럼 목차를 검색했을 때 결과가 안 나오는 것들을 제외하였다.

[90] 물론 두가지 방식 모두 댓글이 100개가 넘어 댓글이 접히면 검색이 안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91] 가끔 작품 바로 밑에 있는 연관작품의 태그가 잡힐 때도 있긴 하다.

[92] 현재는 사이트가 폐쇄되어서 아카이브를 이용했다.

[93] 🔗#아카이브에서 링크는 안 누르는 것이 좋다

[94] 참고로 (intitle:0화 OR intitle:1화)는 100-1화 같은 것도 검색이 돼서 ("1/2..10+*인기")같이 하는 것이 좋다.

[95] inurl을 넣은 이유는 커뮤4와 같다.

[96] 검색하다보면 디1.1을 써도 댓글 밑 다른 글에 키워드가 잡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게시글에 abc가 있고 댓글 밑 다른 글에도 abc가 있을 경우, 게시글에 abc가 들어 있지만 검색결과에서 제외된다. 누락되는 글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97] 링크를 이용할 때 '닉네임' 그대로 나둬야한다.

[98] 이미지에서는 "A AROUND(X) B" 를 썼으나 -"A AROUND(X) B" 를 써도 된다.

[99] 구글 캐시를 보면 모바일글이란 것을 알 수 있다.

[100] 중국은 없다.

[101] 특정 게임을 보고싶다면 1. 검색창에 게임의 이름을 입력한다. 풀네임을 입력하는 것이 좋다. (메이플X, 메이플스토리O) 2. 게임 채널이 맨 위에 보일 것이다. 들어간다. 3. 실시간에 들어간다.

[102] 2020/1/1 같이 해도 문제없지만 모바일에서 %2F로 바뀌어 보기 불편해서 -를 썼다.

[103] 구글에서 검색하면 not found 뜨는 게시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링크에서 검색하는 것이 낫다. 검색어 없이 특정 게시판 내의 글을 보고 싶다면 select a board에서 선택하면 된다.

[104] 이유는 모르겠지만 레딧은 qdr이 제대로 안먹힌다.

[105] amp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고 싶다면 pc버전으로 바꾼 뒤 들어가자.

[106] PC

[107] 모바일

[108] 주소창에 &p=2,3,4...를 추가해 페이지를 넘길 수도 있다.

[109] 2020년 11월 26일 오후 2시 30분 ~ 오후 3시

[110] 2006년

[111] 참고로 파이어폭스 캡처 단축키는 ctrl+shift+s로 엣지와 같다. 웹페이지를 우클릭한 뒤 '스크린샷 찍기(T)'를 클릭해도 된다.

[112] 여담으로 댓글 중에 -한 키워드가 더 검색된다는 댓글이 있던데, A-B처럼 A와 -B사이를 안 띄워서 인 것으로 보인다. (치킨 -나무위키) 와 (치킨-나무위키)를 비교해보자.

[113] 블로그에서는 3초 정도라고 했지만 컴퓨터에 따라 더 걸릴 수 있다. 'LibreOffice built-in help'가 뜨는 창에서 기다리다보면 밑에 뭐가 뜬다. 그러면 실행을 누르면 된다.

[114] 따로 추가되었다는 말은 안 뜨고 추가버튼 누르고 5초정도 지난 뒤 주소창을 보면 추가된것을 알 수 있다

[115] 스마트폰 버튼 3개 홈버튼, 뒤로가기버튼 말고 나머지 하나

[115] 스마트폰 머든 3개 폼머든, 위도가기머든 같고 다머지 아다

[116] 주의: 회의적이다는 말이 틀렸다는말은 절대 아니다.

[117] 단 위키러가 못 찾은 것일 뿐일 수도 있다.

[118] 책은 인터넷 글과 달리 본문 내용을 검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의 제목, 목차, 다른 사람의 추천글 등에 의존하게 된다. 이 중 책의 제목과 목차는 책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그러나 '경제사회학이론'(박길성, 이택면 씀)이라는 책의 목차를 검색해본 결과🔗#, 책의 목차가 검색결과에 많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책의 제목은 제목과 내용이 1대1로 매치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쉽지 않다. 예를들어 '코스모스'는 우주 분야의 책이지만 제목'만' 보면 식물 분야의 책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국화와 꽃'또한 일본 분야의 책이지만 제목'만' 보면 식물 분야의 책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만약 책의 제목'만'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라면, 우주나 일본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도 '코스모스'나 '국화와 꽃'같은 책은 발굴할 수 없다. 그리고 요즘은 바이럴 마케팅이 많은 세상이라 다른 사람의 추천글은 함부로 믿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좋은 책을 검색으로 발굴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다.

[119] 댓글 5개 이상.

[120] 댓글 9개 이상.

[121] 추천 5개 이하 댓글 5개 이상.

[122] 추천 5개 이하 댓글 9개 이상.

[123] 커뮤1에서 (구글링 OR 구글검색 팁) 같은 키워드로 1~2년이내로 조회해보면 이런 글이 많은 추천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도 마찬가지이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